

문 의	대변인실	대변인 이 춘 무	042-481-5027
		사무관 이 승 윤	042-481-5272
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	2019년 9월 30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인터넷매체는 9월 29일(일)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.	

박원주 특허청장, 200회 맞는 「4시!특허청」 출연 - 세계 7번째 200만호 특허등록 의미 설명 -

박원주 특허청장은 30일 200회를 맞는 유튜브 방송 『4시!특허청입니다』 게스트로 출연한다.

박 청장은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▲200만호 특허 및 100만호 디자인등록증 수여식 ▲세계 7번째 200만호 특허등록 의미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.

우리의 200만호 특허등록은 1946년 특허제도가 도입된 이후 73년만의 성과다. 미국, 프랑스, 영국, 일본, 독일, 중국에 이어 세계 7번째다. 또한, 제 1호 특허 등록(1948년) 후 100만호 등록(2010년)까지 62년이 걸린 데 비해, 100만호에서 200만호 등록(2019년)까지는 9년 만에 달성했다.

* 1호 특허(1948.11.20) : 유화염료제조법(중앙공업연구소)

200만호 특허(2019.7.9) : 치료용 항체를 활용한 종양성장 억제 기술(오름테라퓨틱)

200만호 특허 및 100만호 디자인등록증 수여식은 미중 무역분쟁, 일본의 수출규제 등 지재권을 둘러싼 국가간, 기업간 생존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지식재산 기반 기술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업인, 과학기술인들의 혁신 성과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.

박 청장은 『4시!특허청입니다』를 통해 이같은 성과에 대한 배경과 의미, 행사 뒷이야기를 자세하게 전할 예정이다.

한편, 『4시!특허청입니다』는 매일 오후 4시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 특허청 직원, 기업가, 지재권 전문가 등 다양한 출연진들이 지식 재산 뉴스와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토크쇼 형식의 방송이다

[사진1] 박원주 특허청장(오른쪽)이 『4시!특허청』에 출연하여 200만호 특허 및 100만호 디자인등록증 수여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.

[사진2] 박원주 특허청장(오른쪽)이 30일자로 200회 방송을 맞는 『4시!특허청』에 출연하여 녹화를 하고 있다.

※ 붙임: 박원주 특허청장, 200회 맞는 <4시! 특허청> 출연 사진



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대변인실 이승윤 사무관에게 연락(☎ 042-481-5272)주시기 바랍니다.

사진

박원주 특허청장, 200회 맞는 『4시! 특허청』 출연 사진

[사진1]



[사진2]

